

# '김병순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재래·근대식 농기구 남아 있어  
농사법과 농사도구의 발전상  
살펴볼 수 있는 등 가치 인정



익산 김병순 고택 전경.

그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김안균가옥이 지난달 1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지정명칭은 익산 김병순 고택으로 하되 지정 예고기간 중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때 재검토될 예정이다.

익산 김병순 고택은 전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마을(함열리)의 3대 만석꾼 중 한명으로 알려진 김병순(1894~1936)이 1920년대 건립한 집으로 당시 식객과 걸인들을 보살피고 많은 예술인이 왕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마을 중앙으로 난 길에서는 장이 서서 이 고택 앞에서 가판을 두고 장판을 벌었다고도 전해진다.

1920년대에 건립돼 현존하는 전북지방의 주택 중 가장 큰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는 익공(翼工, 새 날개 모양의 부재) 형식이며 조각은 당초(唐草, 덩굴무늬)문양을 부조로 조각하였고, 부분적으로 궁궐건축 양식을 도입하였다. 창호는 흑창(黑窓, 덧문과 영창 사이 문)까지 있는 삼중창으로 설치하였는데 단열을 고려한 보기 드문 양식으로 당시

부농주거 공간의 일면을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뒷면과 옆면에는 근대기 한옥에서 많이 사용했던 유리를 사용했으며 사랑채와 안채 사이는 붉은 벽돌로 내·외벽을 설치하여 개화기 전통가옥 형식에 근대의 건축기법이 가미되던 당시의 시대상과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당시 만석꾼의 집에 일꾼들이 농사를 지었던 재래식 농기구와 근대식 농사 도

구들이 남아 있어 근대기에 이뤄진 농사법과 농사도구의 발전상도 살펴볼 수 있는 등 국가민속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청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유병희 기자

## 강천산에 울려 퍼진 숲속 음악회 선율...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펼쳐

'숲속 음악회'가 지난달 30일 강천산에서 진행돼 등산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동호회, 회장 최종섭) 주관으로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 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순창 강천산은 년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찾는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병풍폭포는 병풍을 드리운 아름다운 폭포로 강천산의 대표적 포토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6개팀 30여명이 공연을 펼쳐 단풍철을 맞아 강천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공연을 선사했다. 공연장을 찾은 등산객들은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선율과 병풍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잠시나마 눈을 감고 감상에 젖었다. 특히 하모니카 동호회는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부터 매주 1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순창군을 대표하는 동호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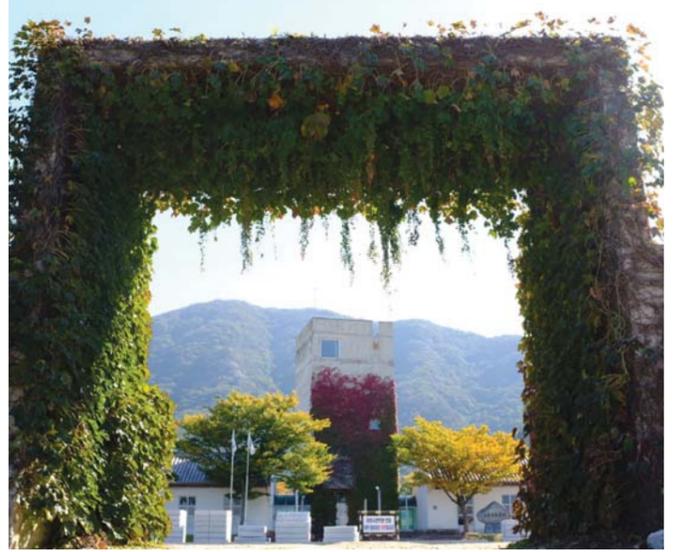
이날 행사장을 찾은 최종섭 회장은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동호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어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순창군이 후원하고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주관으로 열린 '숲속 음악회'가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 일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요양원 등 소외계층을 찾아 공연을 추진하는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31

일까지 군청과 순창고등학교 로비 등에서 동호회 회원들의 200여개 작품 전시활동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미당문학제'가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 미당시문학관에서 열린다.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미당 문학제' 함께해요

오늘부터 4일까지 고창 부안면 질마재 미당시문학관서

미당 서정주와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기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제인 '2018 미당문학제'가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 미당시문학관에서 열린다.

재미당시문학관에서 주최하고 미당문학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 미당문학제'는 미당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전시·공연과 문학제,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첫날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대금, 색소폰, 재즈, 클래식 협주 등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3일에는 기념식과 함께 부안면 농악단의 농악공연과 청소년백일장, 미당 시 낭송대회와 씨서봉 윤형주 기획공연으로 '윤형주와 미당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노래'가 마련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미당의 특별한 이야기, 노래를 함께 들어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날 기획 콘서트로 '제 21회 소월시문학상'과 '제 5회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한 문태준 시인의 '시와 문학이야기', 동국대 윤재웅 교수의 '미당의 삶과 시, 그리고 역사'를 통해 시와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시간을 갖는다.

4일에는 고창시낭송회의 '미당시곡'과 '질마재 마을의 추억 한마당'이 마련된

다. 아울러 '1950-1980'년대의 어려운 시절, 서정주 시인이 가난한 형편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대접하곤 했다는 국수와 막걸리를 맛볼 수 있도록 '시인의 밥상' 체험으로 '미당 국수'와 '국화 동동 막걸리'를 맛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밖에도 '우리가 꿈꾸는 마을 그리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그림 타일을 모아 현재 조성 중인 '질마재 마을'에 배치·전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에게는 유족들이 마련한 '질마재 기념 달력', '미당 엽서'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시문학관 전망대 아래, 시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질마재 신화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작은 음악당'에 특별하게 기획된 '미당 시 배너'를 통해 '자화상'에서 '평항가'까지, 시인의 전 생애와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함께 드러나도록 배치했다.

시문학관 미당 원편에서는 하우스 조형물에 전시된 전북·고창 문인협회 시인들의 '시화'를 전시하며 미당시에 나오는 영산홍, 국화, 만들레 등을 디자인한 '미당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세계이야기-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매듭, 염색, 전통차, 바느질, 책갈피, 가족 공예' 체험 등이 마련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